

러 월드컵 위한 '젊은피' 시험

슈틸리케호 동아시아컵 23명 최종 명단 공개

1990년생 18명 등 평균나이 24.3세 A매치 경험 6.96경기...첫 출전 다수

평균나이 24.3세. 평균 A매치 출전 6.96경기.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평균 A매치 득점 0.65골.

201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8월 1~9일·중국 우한)에 나설 슈틸리케호 태극전사 23명의 평균이다. 수치만 보면 사실상 '정예멤버'라기 보다는 '상비군'에 가깝다.

하지만 울리 슈틸리케 축구 대표팀 감독이 동아시아컵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를 엿볼 수 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을 겨냥해 K리그와 일본 J리그 무대에서 활약하는 '젊은피'들의 기량을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슈틸리케 감독은 20일 축구회관에서 동아시아컵에 나설 2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태극전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젊어진 향기를 느낄 수 있다.

23명 가운데 무려 18명이 1990년대에 태어난 선수다. 1980년대생은 골키퍼 김진현(1987년생), 수비수 감주영(1988년생)·김기희(1989년생), 미드필더 정우영(1989년생), 공격수 김신욱(1988년생) 등 5명뿐이다.

슈틸리케 감독은 올해 1월 2015 아시아컵을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아랍에미리트(UAE), 미얀마 등과 A매치를 치르면서 총 3차례 대표팀 소집에 나섰다. 아시아컵에서 모인 태극전사들의 평균 나이는 26.73세였다. 또 지난 3월 우즈베키스탄-뉴질랜드 평가전에 모인 태극전사들의 평균 나이는 26.40세였고, 지난달 동남아 원정에서 출격한 태극전사들의 평균 나이는 25.95세였다.

나이가 어리지만 선수들의 A매치 경험도 특 떨어졌다. 동아시아컵에 발탁된 23명 가운데 가장 A매치 출전 경험이 많은 선수는 수비수인 김영권(광저우 헝다·35경기). 그다음은 슈틸리케호에 처음 승선한 공격수 김신욱(울산·29경기)이다.

그나마 A매치 출전 경험이 10경기 이상인 선수는 김영권, 김신욱을 포함해 장현수(광저우 푸리·16경기), 김민우(사간도스·11경기), 이정협(상주·11경기), 김승규(울산·12경기), 김진현(세레소 오사카·11경기) 등 7명이다. A매치 출전 경험이 전혀 없는 선수는 6명이나 되고, 그나마 A매치에서 득점 경험이 있는 선수도 6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A매치 평균 출전 횟수

슈틸리케호 대표팀 명단
2015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FW
김신욱(울산) 이정협(상주)
MF
이재성(전북) 이찬동(광주) 장현수(광저우 푸리) 권상훈(수원) 이용재(바렌 나가사키) 이종호(전남) 정우영(빛셀 고베) 김민우(사간도스) 김승태(포항)
DF
정동호(울산) 임창우(울산) 김주영(상하이 상강) 김민혁(사간도스) 김기희(전북) 김영권(광저우 헝다) 홍철(수원) 이주용(전북)
GK
김승규(울산) 김진현(세레소 오사카) 구성윤(문사도레 샹모리)

연합뉴스

는 6.96경기에 골키퍼를 제외한 필드 플레이어 20명의 평균 A매치 득점은 0.65골에 불과하다.

슈틸리케 감독 역시 동아시아컵 최종명단을 조율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파악했다.

그는 "젊은 팀을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 역시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나 역시 생각이 없는 감독은 아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가져가면서도 동아시아컵에서는 좋은 경기를 펼치겠다. 물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첫 태극마크 광주FC 이찬동 "실력 150% 발휘하겠다"



광주 FC의 2년차 미드필더 이찬동이 소원성취를 했다. 그는 20일 진행된 2015 동아시아컵 23인 엔트리 발표에서 이름이 불렸다.

울리 슈틸리케 대표팀 감독은 "항상 소속팀에서 보이는 활약을 중심으로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활약과 경기력을 바탕으로 낙점했다"며 이찬동을 지목했다.

이찬동은 올림픽 대표팀에 이어 생애 처음으로 국가대표 유니폼까지 입게 되면서 축구 인생 최고의 하루를 보냈다.

지난해 신인선수 선발 드래프트 2순위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이찬동은 소문난 '싸움닭'이다. 183cm·80kg의 다부진 체격을 갖춘 그는 몸싸움과 태클, 과감한 중거리 슈팅 등이 일품이다. 수비라인을 올려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광주에서 상대 공격을 저지하고 공격에 힘을 보태는 핵심 선수다. 프로 데뷔 첫해인 지난해에는 31경기에 나와 광주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키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올해 U-22대표팀(감독 신태용)에 발탁돼 지난 3월 열린 AFC U-23 챔피언십 예선전과 U-22 친선경기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 기세를 이어 '슈틸리케호'에까지 승선하게 됐다.

그라운드에서는 알아주는 투사 이찬동이지만 "원래 말도 잘 못 하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다"

며 기쁨을 숨기지 못했다.

이찬동은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 이렇게 선발이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어렸을 때부터 간절하게 꿈꿔왔던 순간이 이뤄진 날이다. 오늘 7월20일은 내 축구 인생의 최고의 하루가 될 것 같다"며 "살면서 몇 번 오지 않는, 한 번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꿈만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꿈만 같다는 이찬동은 '간절함'으로 매 경기 최선을 다한 모습이 좋은 점수를 얻은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찬동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가 온 것 같다. 축구 노트에 간절하게 적실하게, 독을 품고 하지도 적어냈다. 매 경기 그걸 보고 들어가면서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않으려고 한다"며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겠다. 내 실력의 100%가 아닌 150%를 보여줄 수 있도록 살아 남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찬동이 23인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면서 광주 FC는 3년 만에 경사를 맞았다. 지난 2012년 이승기(현 상주 상무)에 이어 3년 만에 국가대표를 배출하게 됐다.

이찬동을 키워낸 광주 FC 남기일 감독은 "그라운드의 굵은일을 도맡으며 중원의 지우개 같은 활약을 펼치는 살림꾼이다. 처음 성인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고 오직 버린다"고 격려했다. /김여용기자 wool@

7년만의 감격... 최윤정 LPGA 마라톤 클래식 연장 우승



최윤정(왼쪽)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마라톤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자 동료들이 최윤정과 최윤정의 아버지인 캐디 최치연(오른쪽)에게 축하의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156전 157기' 아빠 캐디 웃다

2부투어 때부터 함께 출전 "이제 운정에도 골프 즐길 것"

최윤정(25·볼빅)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라톤 클래식(총상금 150만 달러) 우승을 차지했다.

최윤정은 20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이랜드 메도우스 골프클럽(파71·6512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의 성적을 낸 최윤정은 장하나(23·비씨카드)와 공동 선두가 돼 연장 승부를 벌였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첫 번째 홀에서 파를 지킨 최윤정은 보기에 그친 장하나를 따돌리고 LPGA 투어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2009년부터 LPGA 투어에서 활약한 최윤정은 앞서 156개 대회에 출전해 우승이 없다가 157번째 도전에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우승 상금은 22만 5000달러(약 2억5000만원)다.

최윤정의 이번 대회 전까지 개인 최고 성적은 지난해 2월 ISPS 한도 호주 여자오픈 등에서 거둔 준우승 세 차례였다. 2012년 6월 매뉴라이프 파이널 클래식, 2013년 11월 미즈노 클래식에서 준우승하는 등 우승 문턱까지 갔던

것이 여러 번이었지만 좀처럼 우승 소식을 전하지 못하던 최윤정은 이날 연장 접전 끝에 '156전 157기'를 이뤄냈다.

14언더파로 장하나와 동률인 상황에서 시작한 18번 홀에서 최윤정은 티샷이 왼쪽으로 밀려 위기를 맞았다. 최윤정은 약 2.5m 파 퍼트를 남겼지만 장하는 3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앞두고 있어 장하나가 유리했다.

하지만 장하나의 버디 퍼트가 빗나가면서 승부는 연장으로 향했고, 연장에서는 장하나가 83야드 정도를 남기고 친 세 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러프로 향해 승운이 최윤정 쪽으로 기울었다. 장하나가 그린 밖에서 시도한 칩샷도 홀을 한참 지나갔다.

최윤정은 "우승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마지막까지 긴장됐다"며 "파만 잡는다는 생각으로 침착하게 하라"는 아버지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버지(최치연)가 캐디를 맡고 있다. LPGA 투어에 데뷔하기 1년 전 2부투어 시절부터 지금까지 8년째다. 최윤정은 "꿈이 이뤄졌다"며 "주위에서

'아빠가 캐디를 하니 우승을 못한다'는 말도 들었지만 이렇게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부친 최치연(56) 씨는 LPGA 투어 인턴해 홈페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이제 (최)윤정도 골프를 더욱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행복해했다.

LPGA 투어는 "이들 부녀는 앞으로 2개 대회의 속속 예약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 2개 대회에 더 함께 호흡을 맞출 것"이라며 "그 뒤로는 새로운 캐디를 구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1989년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한 아버지 최치연 씨는 "말이 상당히 꼼꼼한 성격이라 다른 캐디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다"며 "좀 더 논의해서 가장 문제가 없을 시기에 캐디를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최윤정의 우승으로 올해 LPGA 투어에서 11승을 합쳐 2006년과 2009년에 세운 한국 선수 최다승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이는 교포 선수들의 우승 횟수를 제외한 수치다. /연합뉴스

장예솔, 핀수영 세계선수권 4관왕

표면 50m·100m, 호흡 잠영 50m·100m 금



광주시체육회 소속 핀수영 난매가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 장예솔은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개수를 또 늘려 4관왕에 올랐고, 김태균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예솔은 20일 중국 옌타이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여자 호흡 잠영 50m 결선에서 15초73으로 금빛 물살을 갈았다. 이번 대회 네번째 금메달이다. 여자 표면 50m에서는 세계신기록 경신과 우승이라는 겹경사를 누렸다. 장예솔은 예선에서 17초08로 골인, 기존 추바오옌(중국)의 17초10을 0.02초 단축해 세계기록을 새로 썼다. 이어 열린 결선에서 장예솔은 17초25로 가장 빠르게 물살을 갈았다. 앞서 표면 100m와 호흡 잠영 1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장예솔은 대회 4관왕을 달성했다.

장예솔은 17초25로 가장 빠르게 물살을 갈았다. 앞서 표면 100m와 호흡 잠영 100m에서 출전해 31초72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예선에서는 남자 표면 100m 금메달리스트 이관호(강릉시청)가 32초13으로 김태균의 32초39보다 빨랐다. 그러나 결선에서 이관호는 34초23을 기록해 8위로 처졌고, 김태균은 예선보다 빠른 기록으로 당당히 정상에 섰다. /박정욱기자 jwpark@

시생활체육회, 광주서 달빛동맹 배드민턴 대회 열어

광주와 대구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지난 19일 광주 첨단배드민턴전용구장에서 '달빛동맹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다. <사진>

광주시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는 광주 시(빛고을)와 대구시(달구벌)의 화합과 상생발전을 이끄는 협력사업인 '달빛동맹'을 강화하고자 친선 배드민턴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회는 광주시배드민턴연합회(연합회장 홍성길)를 주축으로 광주와 대구 생활체육 동호인 10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길 광주배드민턴연합회장은 "양 도시간 스포츠교류를 통해 서로 화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두 도시가 상생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